

쪽방 할아버지

최승호

“형, 할아버지 돌아가셨대.”

얼마 전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 A의 난데없는 전화였다.

“할아버지라니, 누구? 너 할아버지 안계시잖아.”

“아니, 쪽방 할아버지.”

폼도 나지 않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담아보
자고 호기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공
중과도 지역민방도 아닌 어정쩡한 방송사에서 별다른 사명감도 없
이 일하던 우리에게 어찌면 조금은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오만
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던 프로그램.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 본 세상에는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사연과
귀를 귀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와 시선을 맞춰야만 볼 수 있
는 수많은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영등포 쪽
방 할아버지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2001. 7

A가 처음 할아버지를 만난 건 2년 전. 흔히들 쪽방이라고 부르
는, 영등포역 근처의 1.5평짜리 작은 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취
재하면서였다. 이름은 남궁태우, 고향은 함경북도 나진이라고 했

다. 1918년에 나셨으니 연세는 여든 넷. 불편한 다리로 식당을 돌아다니며 수세미나 고무장갑을 팔아서 버는 만 원 남짓한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던 할아버지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소원은 고향에 한 번 가보는 것이었다.

“아들이 살아 있으면 올해 환갑이야.”

아들과 부인 중에 누가 더 보고 싶냐는 질문에 그래도 부인이 더 보고 싶었던 할아버지. 때마침 이뤄지던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은 할아버지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에 신청조차 할 수가 없었다. 주민등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곧 통일이 된다고 하길래 주민등록을 하지도 않았지.”

한반도의 꼭대기쯤에 있는 나진에서 태어난 할아버지는 열 살이 채 되기도 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 간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일. 낯선 일본에서의 생활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본에서 해방을 맞은 할아버지는 1948년 귀국을 결심하고 부인과 자식을 원산으로 가는 배편에 먼저 보냈다고 했다.

“왜 같이 안 가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만 며칠 뒤에 배를 탔지. 그런데 도착해 보니 부산인 거야. 부산행 배를 원산으로 가는 배인 줄 잘못 알고 탄 거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기구한 사연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된 할아버지는 그 이후에 몇 번이나 북쪽으로 넘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잡혀서 전쟁 중엔 포로수용소로 끌려가게 됐고, 결국 거기서 받은 선물이 불편해진 다리였다. 그리고 나서도 곧 통일된다는 소리에, 남한 땅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생

각하고는 주민등록도 없이 50 몇 년을 살아오신 거였다.

한 해에 300명씩 만나는 이산가족이 모두 만나려면 3300년이 걸린다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 한 가닥 희망을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그 덕분에 생활보호대상자도 되어서 한 달에 얼마씩 돈도 받게 됐고 살아온 동안에 처음으로 예금통장도 만들 수 있었다. 그 해 여름 A가 마지막으로 본 할아버지는 통장의 첫 입금액 만 원을 확인하며 밝게 웃던 모습이었다.

2001. 12

“선배,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도 특집 하죠.”

“시간도 얼마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냥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 요즘은 어떻게 살고 있나 만나보는 거죠. 다들 같이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취재하던 소재가 엮어지자 팀장에게 전화로 한 말이었다. 순식간에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우린 그동안 자신이 만나왔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다시 카메라에 담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우리들은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목동 전화국을 점거하고선, 모두 끌려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뉴스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10초 나왔다는 걸로 기뻐하던 한국통신 비정규직노조의 허허로운 연말행사, 일부러 잡혀가면 세 달도 안 되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데도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한총련 수배자들, 그리고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성당에서 나오지 못하는 대우자동차 해고자들의 모습

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그래도 발견해야만 하는 작은 희망은 먼 남쪽 여수에서 찾아왔다.

“잘사는 나라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도, 그 험한 중국을 헤매어 다닐 때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살생각이, 먹을 것을 찾아 내려온 대한민국에서 처음 들었다는 꽃제비 춘희. 스무 살의 나이에 초등학교 과정을 힘겹게 따라가던 춘희는 학교에 다니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있는 여수로 내려가 미용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한국에 와서 2cm 밖에 안 컸어요. 내년엔 좀 더 크겠죠?” 라며 해맑게 웃던 녀석은 이 곳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험한 중국 땅을 떠돌 때 그랬던 것처럼 더 강해지기로 결심한 듯했다.

씩씩해져 있는 춘희만큼이나 우리가 궁금했던 쪽방 할아버지. A가 다시 찾아간 할아버지의 영등포 쪽방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조금은 여유로워져서 그런지 살림살이도 전보다 늘어나고 조심스럽게 보여주는 통장엔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여져 있었다.

“금강산에 가려면 돈을 좀더 모아야 돼.”

“가서 뭐하시려고요?”

“이북 사람들하고 말이나 몇 마디 하려고. 그리고 흙이나 한 줌 가져와야지.”

“그 흙 돌아가시면 무덤에 같이 넣어드려요?”

“무덤을 만들어서 뭐해. 그냥 화장하고 말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으로 북한에 가는 건 너무 먼 이야기라는 걸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삶, 좀더 현실적인 것으로 바뀐 할아버지의 희망.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쉽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아버지 당신의 운명이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책임질 수 없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다.

“곧 통일이 되겠지요…….”

2003. 2

A와 함께 할아버지의 지난 모습들을 떠올리며, 늦은 밤을 달려 찾아가던 지방의 병원 영안실에 할아버지의 빈소가 없었다. 상주도 없고 영정사진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으니 빈소가 있을 리가 없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얼마 전에 이리로 내려오셨대.”

지난해 할아버지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금강산에 다녀왔다고 했다. 그리곤 마음을 놓으셨는지 건강이 많이 악화됐고 결국 지방에 있는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옮기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어색한 침묵으로 영안실 앞 공터에서 조심스럽게 담배를 나눠피며 우리는 길고도 짧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생각했다. 커다란 신념을 가졌던 것도 아닌데 남한주민도 북한주민도 될 수 없었던 분.

“형,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는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는 데도 계셨대.”

주민등록도 없던 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막노동밖에 없었겠지. 갑자기 조정래의 소설이 생각났다. ‘아리랑’이었던가? 굴곡 많은 20세기 현대사가 한 가족에게 모두 닥쳐오길래 짜증이 나서 읽다가 때려치웠었지 아아…….

“너 할아버지 모습 자주 촬영해 뒀니?”

“아니. 지난 번 금강산 가실 때도 못 찍었고, 병원 입원하실 때도…….”

식민지에서 태어나 지배의 아픔을 겪던 나라에서 청춘을 보내고, 가족과 헤어져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남한에서 개발독재를 겪으며 통일되는 날만을 기다리던 할아버지. 무책임한 위로의 말 몇 마디가 아니라 당신이 살았던 흔적을 남기는 게 우리들의 몫은 아니었을까?

아직도 삶을 기록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뒤늦은 후회를 하며 우리는 담배만 계속 피웠다. ■

최승호 sulho@dreamwiz.com | 작은 카메라로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며, 경인방송 리얼다큐 팀에서 프리랜서 VJ로 활동.